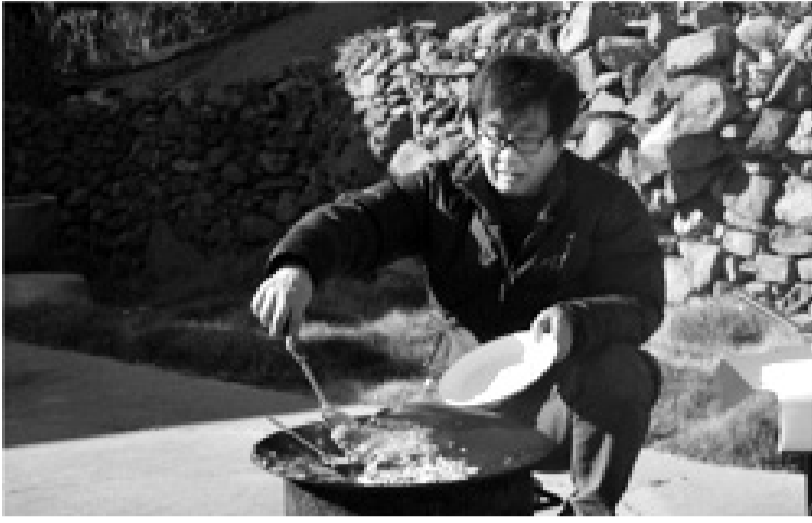


“노인 방송? NO! ... 최신 예능 집합체죠”



“고향이 주는 포근함, 그거 때문에 가는 거지. ‘6시 내고향’에서 ‘내 고향’이라는 게 참 매력이 있어요. 하하. 고향 같은 프로그램입니다.”(전영록)

KBS 1TV ‘6시 내고향’은 1991년부터 시청자들의 평일 저녁을 책임진 KBS의 간판 장수 프로그램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며 이혼향도 현상이 일어났고, 고향을 떠난 도시인들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6시 내고향’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획 의도와 달리 노년층이 보는 ‘올드한’ 프로그램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밴드 데이식스나 게스트로 출연하는가 하면, 이덕화가 리포터로 등장하기도 했다. 심하원 PD는 “30년째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작진이 야심 차게 내놓은 건 수요일 코너. 24일 처음 공개된 전영록의 ‘섬마을 하숙생’, 지난 7월부터 방송되고 있는 이정용의 ‘오!만보기’가 바로 그것. ‘영원한 오빠’ 전영록(65)과 ‘믿음이 아빠’ 이정용(50)은 사람 냄새 나는 ‘6시 내 고향’ 예찬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KBS 30년 장수 ‘6시 내고향’의 변신

전영록 ‘섬마을 하숙생’·이정용 ‘오!만보기’ 코너 눈길 여행·먹거리·사람 이야기... ‘올드프로’ 고정관념 탈피

전영록의 ‘섬마을 하숙생’은 제목 그대로 그가 섬마을에 하숙생으로 찾아가 살아보는 코너다. 첫 회에선 전라남도 고흥의 ‘애도(艾島)’라는 섬으로 향했다. 슈퍼마켓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전영록은 손 불을 지피며 술밥을 지어먹는 등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다.

전영록은 “섬에 가면 그래도 의식주가 게스트로 출연하는가 하면, 이덕화가 리포터로 등장하기도 했다. 심하원 PD는 “30년째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외풍이 세서 (이불 안 덮는) 위에는 영하 3~4도, 이불 밑에는 30~40도였어요. 이불을 덮기도 안 덮기도 그렇고 해서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을 쐬기도 했고요. 또 전자레인지도 없어서 아궁이에 불을 때 밥을 해야 하는데, 살면서 아궁이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웃음).” 그는 그런데도 “그것들이 다 좋았다.

고향이니까”라고 말했다.

“제 고향은 서울이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제2의, 제3의 고향이 나오는 거지요. 내가 속하고 머무르는 곳이 고향입니다.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볼 수 있는 곳을 제가 가서, 머물면서 ‘내 고향’을 느껴요. 섬의 적막함 때문에 이틀만 있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점점 섬에 속하게 되더군요.”

전영록이 인적 드문 섬에 가서 머무른다면, 이정용은 사람 사는 곳을 찾아 부지런히 걷는다. ‘오!만보기’는 그가 1박 2일 동안 5만보를 직접 걸어 채우는 코너다. 이정용은 “자동차를 타면 놓치는 멋진 풍경, 맛있는 먹거리, 인간다운 삶을 걸어가면서 직접 느껴보자는 게 코너의 취지”라고 말했다.

“철저한 무게측, 무섭기로 진행합니다. 집 꾸러미를 메고 전국을 걸어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깨달음을

얻죠. 무섭기로 하다 보니 불쑥불쑥 들어가게 돼요. 참 실례되는 일인데, 놀라운 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다 사연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가벼운 대화만 하고 가려고 해도 그분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줄 줄 나와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만보기’에 대한 애정이 넘쳐 직접 LED 명찰까지 제작한 이정용은 “촬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찍는다. 체력도 더 좋아지고 생각도 깊어지는, 몸과 마음에 보약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전영록과 이정용은 ‘6시 내고향’이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의 ‘엑기스(진액)’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찬찬히 뜯어보면 젊은 세대에겐 익숙한 tvN ‘삼시세끼’, JTBC ‘한끼줍쇼’, KBS 2TV ‘1박2일’ 같은 인기 예능과의 공통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여행, 먹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전영록 선배님과 함께 건강한 기운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뜨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이정용)

/연합뉴스

‘별밤지기’ 문형식, 라디오 DJ로 복귀

광주CBS 음악FM

‘문형식의 12시에 만나다’

90년대 광주에서 ‘별밤지기’로 맹활약했던 문형식(사진) DJ가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감성을 다시 전하기 위해 CBS 음악FM을 통해 라디오 DJ로 복귀한다.

광주CBS(본부장 최문희)는 내년 1월 6일부터 광주CBS 음악FM(98.1MHz) 개국 1주년을 맞아 1980년대 광주CBS에서 방송을 시작한 문형식 씨를 낫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방송되는 ‘문형식의 12시에 만나다’ DJ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1983년 대학 재학 시절 교내 방송국에서 기자와 PD로 활동하면서 라디오 인생을 시작한 문형식 DJ는 대학 4학년 때 광주CBS ‘3시의 데이트’ DJ로 방송에 진출해 ‘다시 듣고 싶은 노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1992년 당시 지역방



송에서 인기가 높았던 심야방송 ‘별밤’ 진행을 맡았고 케이블TV와 대학 외래교수, LP 카페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한편 ‘문형식의 12시에 만나다’는 7,80년대 가요를 중심으로 청취자 참여(문자와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추억여행을 떠나는 순수 음악프로그램이다. ‘시대별 차트’, ‘추억의 가요’, ‘그 시절 빌보드 차트’와 같은 코너를 활용해 청취자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ju.co.kr

사이다 결말 대신 차가운 현실 ... ‘VIP’ 15.9% 종영

‘사이다’ 같은 복수가 아니라 현실적인 결말로 여운 남기기를 택했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한 SBS TV 월화드라마 ‘VIP’는 시청률 12.0%~15.9%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종영했다.

‘VIP’는 한국드라마들의 단골 소재인 불륜을 다뤘지만 ‘막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대신 조금씩 변주하는 드라마였다.

이제는 조강지처가 아니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능력 있는 커플이 우먼이고, 남편과 아내가 불륜을 두고 갈등을 보이는 장소는 가정집이 아니라 회사 사무실이었다.

드라마 중반부까지 ‘불륜녀’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며 스스로 추리하게 만든 것은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극본과 연출이 시청률 10%를

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성준의 바람 상대가 운유리로 밝혀진 뒤부터는 이야기에 다소 힘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연하(이정아)의 직장 내 성폭력과 미투, 송미나(곽선영)의 워킹맘 애환 등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아픔을 그려 주 시청자인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배우들의 연기도 호평을 받았다. 주연 배우 장나라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부터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아내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극을 견인했다. 이정아도 차가운 도시 여성의 매력을 보여주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호응을 얻었다.

‘VIP’ 후속으로는 다음 달 6일부터 한석규 주연의 ‘낭만닥터 김사부2’가 방송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얼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99억의 여자(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그녀(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푸르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푸르기 갑스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달 공소수와 친구들 5 55 숲 속 친구 스토리즈			00 뉴스브리핑
[3]	10 다큐 공감(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호기심대장 카토 55 두 번은 없다(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네오세모(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도둑V-갤럭시워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최강 1교시 55 닥터 365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그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KBC특집다큐멘터리 진돗개, 최고의 명견을 꿈꾸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지역MBC UHD공동기획 10부작 포구만리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숨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35 KBS 뉴스 45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두 번은 없다(재)	45 나이트라인

EBS1

07:00 출동! 슈퍼윙스	13:00 다큐 시선	18:00 푸르기 천사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8:00 똥동맹 유치원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	14:55 피파루 안전특공대(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뽀빠이	15:10 출동! 슈퍼윙스(재)	20:30 자이언트 펭TV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울리 앤 로	15:55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재)	〈숨겨진 세계 라플란드 -요정들이 사는 숲〉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고택에서 하룻밤 4부 인랑리 고택엔 추억이 산다〉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다큐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2:10 팻하트	17:45 울리 앤 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6일(음 12월 1일 丁酉)

<p>36년생 해묵은 문제제의 살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48년생 부당하다면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60년생 가장자리가 매우 부실한 형태이다. 72년생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84년생 오늘의 복잡다단한 현상은 내인의 활성화를 상징하므로 먼 안목으로 보라. 96년생 의욕이 충만해지고 용기가 분출하는 계기가 된다. 행운의 숫자 : 49, 70</p>	<p>30년생 하나의 조치로 여러 가치를 이루리라. 42년생 모르는 사이에 잠시 방심한다면 그 순간에 놓칠 수도 있다. 54년생 시간각각 변하는 위상이나 진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 66년생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78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90년생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행운의 숫자 : 51, 20</p>
<p>37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9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전대미문의 형태로 나타나리라. 61년생 현재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3년생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으나, 85년생 전 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만 제대로 되어 가리라. 97년생 눈여겨볼 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3, 48</p>	<p>31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련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43년생 내면의 질을 보고 판단하라. 55년생 급한 정정은 오히려 퇴보시킨다. 67년생 포장을 잘 하면 가치치를 높일 것이다. 79년생 분명히 하라. 91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처음부터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7, 98</p>
<p>38년생 상대의 언행에서 충분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 50년생 만사 제쳐 두고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62년생 급박한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라. 74년생 방심하지 말고 새어나가는 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86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려야 된다. 98년생 단순하기는 하나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2, 75</p>	<p>32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행운이 따르리라. 44년생 판국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56년생 산뜻한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실제의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80년생 기존의 형태가 끝없이 반복되는 정황일 뿐이다. 92년생 행동에 장애를 줄만한 일이 일어난다. 행운의 숫자 : 29, 56</p>
<p>39년생 두루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1년생 주변의 위상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판도이다. 63년생 반박성에 속지 마라. 75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정진하면 기쁨이 이루어라. 87년생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99년생 갑갑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줄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86</p>	<p>33년생 상대의 모호한 반응으로 답답할 수다. 4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믿어 불인단면 성취할 수 있다. 57년생 반바탕의 한계 때문에 회의를 느낄 수다. 69년생 일부분부터 운과 이 드러나리라. 81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계속 되어야 한다. 93년생 파다한 징후만 제대로 감지하더라도 충분히 면역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76</p>
<p>40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52년생 믿는 도기도 세심하게 살펴보자. 64년생 성과가 불만족스럽겠다. 76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은 도모할 수 있다. 88년생 바우고 나면 바로 채워질 것이다. 00년생 단단히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74, 23</p>	<p>34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46년생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58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다. 70년생 확인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82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간발의 차이로 행운을 잡게 된다. 94년생 멀리서 들려오는 우렛소리이니 놀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83, 58</p>
<p>41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53년생 변화 무쌍한 상황이나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만 하니라. 65년생 이변이 보이니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임하라. 77년생 요령과 지혜를 총 동원해야 수습할 수 있다. 89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니라. 01년생 걸 모습만 다를 뿐 내면은 차이가 없다. 행운의 숫자 : 68, 25</p>	<p>35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대비해야한다. 47년생 차별화 시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9년생 명분이 확실하다면 제기해도 된다. 71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83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 받는다. 95년생 배려하려는 노력이 요청 된다. 행운의 숫자 : 73, 88</p>